

전쟁의 시대,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중심으로—

박 신 영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국문초록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2013)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그려진다. 이 두 작품은 주로 판타지 속의 전쟁을 묘사한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전쟁을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감독이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과거의 전쟁일까. 감독의 의도와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획서를 통해 밝힌 감독의 기획의도는 물론이고, 이 작품이 기획·제작될 당시의 시대상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본고에서는 〈바람이 분다〉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란히 놓고 감독의 기획의도와 함께 기획·제작 당시의 세계 동향을 고려하며 읽어냄으로써, 이 두 작품이 그리는 '전쟁'과 그 시대 속에서의 '삶'이라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주제어 : 미야자키 하야오, 〈바람이 분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전쟁, 삶, 문화권력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 (2017S1A6A3A01079517)

1. 들어가며

2013년 7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은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2013)를 발표했다. 7월 20일 영화개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 1일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를 공식화 하면서 이 작품은 그의 은퇴작으로 불리게 됐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일본의 근대 소설가 호리 다쓰오(堀辰雄)의 자전적 소설 『바람이 분다』(1936)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여기에 실존 인물인 비행기 개발자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郎)의 이야기를 섞어 새로운 스토리로 엮어낸 것이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이다. 호리코시 지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공격을 감행한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에 사용된 전투기 ‘제로센(零戦)’의 개발자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1984), <천공의 성 라퓨타>(1986), <붉은 돼지>(1992), <하울의 움직이는 성>(2004) 등 그간 여러 작품 속에서 다양한 전투 장면을 표현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판타지 속의 전쟁에 불과했다. <붉은 돼지>(1992)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지만, 일본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야기는 아니며, 주인공 공을 돼지 캐릭터로 표현해 판타지의 느낌을 더했다.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비행기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역시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행 장면과 비행기가 등장해 왔다. 그럼에도 <바람이 분다>가 이전 작품들과 다른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살 특공’에 사용된 ‘제로센’ 전투기 개발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은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를 분석하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임과 동시에, 전쟁 미화, 내셔널리즘 논란 등으로 영화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2017년 2월 미국의 아카데미상 장편애니메이션상 관련 토크쇼에서 스즈키 토시오(鈴木敏夫) 프로듀서의 발언을 통해, 미야자키 감독이 신

작 준비에 돌입한 것이 알려졌다.¹⁾ 사실상 은퇴 철회로 받아들여져 많은 주목을 끌었으나, 이후 신작 발표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다 <바람이 분다> 발표 후 10년이 지난 2023년 7월 14일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로 돌아왔다. 제목은 일본의 근대 작가 요시노 겐자부로(吉野源三郎)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1937)에서 따왔으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번 작품에서도 미야자키 감독은 전작 <바람이 분다>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기획서를 통해 이 이야기의 내용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소년이 어둠 속 세계를 헤매다 죽은 어머니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성장하고, 결국 죽은 어머니와 살아 있는 어머니를 되찾아 생환하는 이야기’²⁾라 설명한다. 이 설명만 보면 언뜻 전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지만, 작품 속 군데군데 등장하는 전쟁 관련 요소는 쉬이 지나치기 어렵다. 야마모토 아키히로(山本昭宏, 2023:202)는 미야자키 감독의 전쟁관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포함한 근현대 세계의 전쟁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발언에서 알 수 있다”면서도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는 전쟁의 가해에도 피해에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야자키 감독의 이전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지만 어디까지나 판타지 속의 전쟁이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두 작품 연속으로 굳이 ‘태평양전쟁’을 시대 배경으로 설정하고, 관련 장면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차례 ‘반전 의식’을 피력해 온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이 분다> 발표 후 시대적 배경을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으로 설정한 점과 전투기 ‘제로센’ 개발자를 모델로 삼았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때문에 <바람이 분다>를 분석한 논고³⁾는 주로 내셔널리즘 측면에서의 비판이

1) 日本經濟新聞 (2017.02.24.)

2) スタジオジブリ 責任編集(2023:7)

3) 박상도(2015:335-359) / 정연욱(2019:309-329) / 이지현(2020:265-286)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겨운(2016)은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감독의 제작 의중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며 작품의 핵심 키워드인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을 통해 작품 제작의 궁극적 의도를 분석했다. 실제 ‘전쟁’을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내셔널리즘 비판에 휩싸였으며, 작품을 더욱 깊이 읽어내기 위한 시도가 많지 않았던 점도 사실이다.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야자키 감독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다시 한번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바람이 분다>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란히 놓고 읽어냄으로써, 그간 내셔널리즘 비판에 가려진 전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다. 미야자키 감독이 이 두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린 ‘태평양전쟁’

1.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전쟁 미화 논란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 개봉을 전후해 일본 내에서의 태평양전쟁 당시를 그린 영화 개봉이나 회고록 발표 등이 눈에 띈다. 2011년 12월 23일에는 <연합함대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태평양전쟁 70년째의 진실-(聯合艦隊司令長官山本五十六-太平洋戦争70年目の真実-)>(2011)이 개봉했다. 2012년 12월 25일에는 전투기 제로센의 개발자 호리코시 지로의 회고록 『제로센 -그 탄생과 영광의 기록(零戦 -その誕生と栄光の記録)』(2012)⁴⁾이 출판되었다. 또 <바람이 분다>가 2013년 7월

4) 이 책은 과거 1970년 3월에 갑파박스, 1974년 12월에 고단샤(講談社)문고에서도 간행된 적이 있다.

20일 일본에서 개봉한 지 약 5개월 후인 2013년 12월 21일, 같은 ‘제로센’을 소재로 한 영화 <영원의 제로(永遠の0)>도 개봉한다. 이처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이 분다>가 발표될 즈음 일본 내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전투기로 사용된 제로센에 대한 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분위기였고, 그와 더불어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이 일던 시기였다. <바람이 분다> 역시 전투기 ‘제로센’을 개발한 인물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 때문에 전쟁 옹호 혹은 전쟁 미화,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신은 이 작품의 목적에 대해 기획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영화는 전쟁을 규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제로센의 우수함으로 일본 젊은이들을 고무시키고자 3함도 아니다. 사실은 민간항공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감싸고 싶은 심산도 없다.

자신의 꿈에 충실히 끈게 걸어난 인물을 그리고 싶을 뿐이다.⁵⁾

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 기자회견에서 한국 팬들에 대한 메시지를 요청한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여러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이번 영화를 봐주면 좋겠다. (중략) 영화 <바람이 분다>의 모티프가 일본의 군국주의가 파멸을 향해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내 가족도, 나 자신도, 스태프도 여러 의문을 가졌다. 거기에 어떻게 답할지를 생각하며 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 영화를 보면 알 것이라 생각한다.⁶⁾

5) この映画は戦争を糾弾しようというものではない。ゼロ戦の優秀さで日本の若者を鼓舞しようというものでもない。本当は民間機を作りたいかかったなどとかばう心算もない。自分の夢に忠実にまっすぐ進んだ人物を描きたいのである。(スタジオジブリ責任編集, 2013:8)

6) いろいろな言葉に邪魔されなくて今度の映画も見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う。(中略) 映画「風立ちぬ」のモチーフそのものが日本の軍国主義が破滅に向かっていく時代を舞台にしているので、私の家族からも自分自身からも、スタッフか

2013년 9월 5일,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가 한국에서 개봉했다. 같은 해 7월에 이미 일본에서 개봉하면서 그 내용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개봉 전부터 전쟁 미화 논란이 일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은 한국 개봉을 앞두고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⁷⁾를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쟁 관련 인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호리 다쓰오는 전쟁의 내용을 전혀 소설에 담지 않고, 호리코시 지로도 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만큼 대항을 하면서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업고 가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아버지도 전쟁에 가담은 했지만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그 시대를 살았다고 해서 그림자를 업고 갈 순 있지만 그 순간순간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같은 인터뷰에서 한국에선 ‘제로센’이라는 소재 때문에 다소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장기가 모두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일장기가 미야자키 감독의 말처럼 ‘모두’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에서 일장기는 주로 전투기의 날개와 동체에 그려져 있는데, 딱 한 장면 지로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는 장면에서 전투기가 시운전을 마치고 제대로 착륙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우선 전투기 개발에 성공해야 그 전투기가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전개로 이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장면이다. 그럼에도 미야자키 감독은 ‘모두’ 떨어진다고 발언한다. 그런데 시운전에 성공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지로는 착륙에 성공하는 전투기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 속에 그려진 ‘일장기’에 대한 미야자키 감독의 인식에 다름 아니다.

らもいろいろな疑問が出た。それにどういふふうか答えるのかということで、この映画を作った。だから映画を見てもらえれば分かると思う。(日本経済新聞(2013.09.07.))

7) 텐아시아(2013.09.03.)



[그림 1] 시운전에 성공한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



[그림 2] 파괴된 '제로센'의 잔해

이렇듯 미야자키 감독은 <바람이 분다>가 전쟁을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기획서 단계에서부터 개봉 후 여러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 시대의 그림자에 가려진, 시대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개인에 대한 생각도 밝히고 있다.

2013년은 일본이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케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 개봉 직전에 발간된 지브리스튜디오 월간 잡지 『열풍(熱風)』⁸⁾ 2013년 7월호는 ‘헌법 개정’을 특집으로 꾸려졌다. 게다가 월간 잡지 『열풍』의 경우 보통은 일본 국내에서의 연간구독만 가능하지만, 2013년 7월호의 특집기사 ‘헌법 개정’에 한해 지브리스튜디오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했다. 이 특집 기사를 통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헌법 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그 의견에 특정 구독자가 아니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3]의 2013년 7월호 『열풍』 표지에서는 하늘을 나는 제로센 전투기와 주인공 지로가 등장하고, 그 그림 위에 ‘특집 헌법개정’이라고 표기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림 3]의 2013년 7월호 『열풍』 표지에 사용된 그림은 <바람이 분다> [그림 4]와 같이 일본판 포스터에 사용된 그림이다. 반면 한국판 포스터에는 [그림 5]와 같이 언덕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나호코와 그 옆을

8) 지브리스튜디오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로, 지브리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작품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사를 실는다.

지키는 지로를 그린 그림을 포스터로 사용했다. 일본판 포스터의 그림은 [그림 6]과 같이 한국에서 홍보용 전단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일본판 포스터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제로센’ 전투기 대신, 새 형상처럼 보이는 비행물체가 그려져 있다.

이러한 포스터에 사용된 그림만 보더라도 한국에서의 ‘제로센’ 소재에 대한 비판 여론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지브리 스튜디오의 행보를 통해 그가 내셔널리즘과의 거리두기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국내의 기존 연구는 전쟁 미화와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에 치우친 경향이 강했다. 또 일본 내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비판이 다수 있었다. 후지와라 기이치(藤原帰一)는 ‘전쟁의 현실은 제쳐두고 비행기의 아름다움만을 탐닉하는 모습’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일본의 전쟁 성애 영화 <전쟁과 한 여자>의 극작가 아라이 하루히코(荒井晴彦)와 프로듀서 데라와키 겐(寺脇研)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림 3] 『열풍』 표지
(2013년 7월호)



[그림 4]
일본판 포스터



[그림 5]
한국판 포스터

9) 毎日新聞(2013.08.21. 東京夕刊)



[그림 6] 새 형상의 비행물체로 교체

영화 <전쟁과 한 여자>를 홍보하기 위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¹⁰⁾에서 아라이는 “미야자키 감독의 인터뷰 등을 보면 ‘기술자에게 전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호리코시 지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건 말도 안 된다. 열심히 산 사람이 다 존경받고 용서받는다면 열심히 침략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도 다 용서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데라와키는 “전쟁에 대해서는 일본 전체에 책임이 있다. 도조 히데키 같은 전범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로센을 만든 호리코시 지로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는 전시여서 각종 자원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로센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자원을 약탈해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작품의 내용 자체만 두고 보면 전쟁 그 자체에 대한 묘사나, 제로센의 우수함에 대한 칭송이라 보기 힘들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신이 기획서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의 꿈에 충실한 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간 ‘자살 특공’과 관련 깊은 ‘제로센’을 개발한 인물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10) 시사IN (2013.08.15.)

결코 이 소재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렇기에 개인의 ‘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 역시 납득이 가기도 한다. 이는 그간 반전(反戰) 의식을 피력해 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력 과도 맞물려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비판 의견을 살펴보면, 태평양전쟁에 관한 표현에 있어서 철저한 비판이 아닌 이상 전쟁 미화나 내셔널리즘 논란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바람이 분다> 역시 개인의 꿈에 대해 그리 고자 한 감독의 의도 보다는 전쟁 미화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작품 자체에 대한 평가는 깊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겨졌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가 혼란에 휩쓸리는 개인에 대해 주목할 만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전쟁

2023년 7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 선언을 반복하고 10년 만에 복귀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돌아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서를 통해 밝힌 이 작품의 내용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소년이 어둠 속 세계를 헤매다 죽은 어머니를 되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성장하고, 결국 죽은 어머니와 살아 있는 어머니를 되찾아 생환하는 이야기’¹¹⁾이다. 하지만 작품의 배경이 1944년~45년 경인 점, 영화 첫 부분에 공습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 장면, [그림 7]과 같이 출정하는 병사들을 환송하는 장면을 굳이 삼입한 점, 군수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대사 등 명시적인 전쟁 묘사가 적지 않기에 이 작품을 논할 때 ‘전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야마모토 아키히로(山本昭宏, 2023:202)는 지적한다.

11) 스타ジオ즈브리責任編集(2023:7)



[그림 7] 일본군 출정 장면

작품의 도입부와 엔딩 장면에는 주인공 마히토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온다.

(1) 도입부 나레이션

전쟁 3년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전쟁) 4년째, 나는 아버지와 도쿄를 떠났다.¹²⁾

(2) 엔딩 장면 나레이션

전쟁이 끝나고 2년 후 도쿄로 돌아가는 날이 왔다.¹³⁾

위의 주인공 마히토 시점의 나레이션을 통해 이 작품에서는 ‘전쟁’의 시간 흐름을 주요 시간 축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발표되자 한국에서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 번복과 10년 만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다양한 감상을 내놓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 평론 잡지인 『씨네21』(2023.11.03.)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획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 작

12) [00:02:20] 戦争の3年目に母さんが死んだ。4年目に僕は父と東京を離れた。

13) [01:58:46] 戦争が終わって2年後、東京に戻る日がきた。

품을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로 ‘1930년 일본의 군수업자를 배경으로 하여 태평양전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점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기획서에서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전쟁’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주제이며, 관객들 역시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감상할 수는 없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2013년 은퇴를 발표한 이후, 약 3년 후인 2016년부터 새로운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여기에는 주제 설정에 대한 고민¹⁴⁾이 엿보인다.

지금의 멍하니 떠다니는 듯, 분명하지 않은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닐까. 세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전쟁일까 대재해일까, 아니면 양쪽 모두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대에 3년이나 걸려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형태의 영화가 바람직한가….

하나, 완전히 평화로운 영화. 예를 들면 토트로 같은 것. 토트로 II는 가능할까?

둘, 전시(戰時)를 무대로 한 영화.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만들어 가면서 시대에 따라잡힐 것을 각오하고 만드는 영화.

2016년이라는 시기를 전후로 세계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2016년 3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테러

14) 「長編企画 覚書 劇場長編を造るか?」(2016.07.01.)

今の、ボンヤリと漂っているような形のはっきりしない時代はおわ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もっと世界全体がゆらいでいるのか。

戦争か大災害か、あるいは両方という可能性もある。

こんな時代に、3年がかりの映画を作るとしたら、どんな形の映画が望ましいか…。

一、うんと平和な映画。たとえばトトロのようなもの。トトロのIIは可能か?

可能性としてはある。おもしろいものをつくれるかもしれないと思うが、思うだけで、戦争が始まったら作ることに意味が出て来るだろう。

二、戦時下を舞台にした映画。時代を先取りして、作りながら時代に追いつかれるのを覚悟してつくる映画。

(スタジオジブリ責任編集(2023:6)

등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자행되었다. 또, 후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불씨가 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이 2014년에 자행되었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지역을 중심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듯 2016년을 전후한 이 시기는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였다. 거기에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 2016년 3월 29일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신안보법제 시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여파가 여전한 시기이기도 했다. 일본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해라는 대혼란의 징조가 팽배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야자키 감독은 차기작의 주제로 (1)토토로Ⅱ와 같은 완전히 평화로운 영화나, (2)전시를 무대로 한 영화나를 고민하게 된다. 이런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복귀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만들어 가면서 시대에 따라잡힐 것을 각오하고 만드는 영화’라는 표현처럼, 마치 시대를 미리 내다보기라도 한 듯,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고, 이 영화가 발표된 2023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지 2년 차에 접어든 해였다. 이 영화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년 10월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는 등 세계는 그야말로 전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작성한 이 작품의 기획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획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세계는 부풀어 오르고 있다. 예측도 되지 않는 큰 파열이 언제 발생할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듯하다.¹⁵⁾

15) 世界は膨れ上がっている。予測もつかない大破裂がいつ生ずるのか。今、私達が生きるこの社会全体が息をとめてその瞬間を待っているかのようだ。(スタジオジブリ責任編集(2013:8)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전작 <바람이 분다>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전쟁 당시의 일본을 배경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야자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획 및 제작하기 전후의 상황을 보면, 그간 반전의를 피력해온 미야자키 감독이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야자키 감독의 영화 주제에 대한 고민과 기획 의도를 통해, 작품에 포함된 태평양전쟁이라는 그림은 과거의 그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혼란을 그려내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

1. 전쟁의 시대와 ‘삶’

앞서 살펴본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 특공’과 관련 있는 ‘제로센’ 전투기 개발자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쟁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또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로 ‘1930년 일본의 군수업자를 배경으로 하여 태평양전쟁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점’을 들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 군과 군수산업 등이 표현된 작품의 경우, 한국에서는 일단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에 대한 기존의 연구 역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에 치우친 경향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바람이 분다>를 작품의 서사 그 자체만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도 소수지만 발표되었다. 정겨운(2016)은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감독의 제작 의중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며 작품의 핵심 키워드인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을 통해 작품 제작의 궁극적 의

도를 분석하고 있다.

내셔널리즘 논란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모티프가 된 또 다른 작품인 호리 다쓰오의 소설 『바람이 분다』가 갖는 의미는 가려졌다. 비행기 개발자 지로(二郎)의 생애에 굳이 결핵에 걸린 약혼녀와의 사랑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야자키 감독은 기획서에서 작품 제목을 설명하면서 “폴 발레리의 시 한 구절을 호리 다쓰오는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라고 번역했다.”¹⁶⁾라며, 작품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시 구절을 소개한다.

애니메이션의 제목에는 호리 다쓰오의 소설 제목과 같이 ‘바람이 분다’가 사용되었지만, 이 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바람이 분다’ 뒤에 ‘살아봐야겠다’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이다. 즉, 이 작품의 제목에는 ‘살아봐야겠다’가 숨어있는 구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지로 Le vent se lève.

나호코 Il faut tenter de vivre.

지로 Le vent se lève. Il faut tenter de vivre.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위의 대사는 주인공 지로와 나호코가 기차에서 처음 만난 장면¹⁷⁾에 등장하는 대사이다. 이 장면에서 지로와 나호코는 프랑스어로 된 시를 서로 한 구절씩 나눠 읊는데, 지로가 먼저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시구를 읊자, 곧이어 나호코가 ‘살아봐야겠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시구를 읊으며 화답한다. 이 시구는 이후에도 작품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호코가 지로에게 남기는 말¹⁸⁾ 역시 ‘삶’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삶’에 관한 인식은 <바람이 분다>에

16) 스태ジオ브리責任編集(2013:8)

17) 스태ジオ브리責任編集(2013:238)

18) 菜穂子 「あなた、生きて。」(스타ジオ브리責任編集, 2013:275)

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노노케 히메>(1997)부터 일관된 미야자키 감독의 인식¹⁹⁾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노노케 히메>(1997)에서의 ‘살’과 <바람이 분다>에서의 ‘살’에는 간극이 있는 듯 하다.



[그림 8] <모노노케 히메>
포스터의 ‘살아라’



[그림 9] <바람이 분다>
포스터의 ‘살아야 한다’

위의 [그림 8]과 같이 <모노노케 히메>(1997) 포스터의 왼쪽 상단에 ‘살아라(生きる)’라는 명령형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다음 [그림 9]와 같이 <바람이 분다> 포스터 가운데 상단에는 ‘살아야 한다(生きね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자신이 직접 경험한 전쟁을 바탕으로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의 전달이 아닐까. 또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호리 타쓰오의 『바람이 분다』에서 제목을 차용한 이유 역시 더욱 명확해진다.

이처럼 ‘살’이라는 키워드까지 고려하면 <바람이 분다>의 주제 의식

19) 세계 인구가 100억이나 200억이 되어 자연이 파괴되고 온갖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인류는 **어떻게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연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지만, 각각의 시대에서 각각 큰 문제를 안고 어떻게든 살아온 것이니까요. 덧붙여 신작은 <모노노케 히메>의 캐치카피는 ‘살아라’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황의웅 역(2013:43))

이 단순히 ‘꿈을 이루기 위해 충실한 기술자’의 이야기로만 보기에는 부족하다. 종합하자면 전쟁의 시대에 수많은 억압 속에서도 살아내야만 하는 개개인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혼란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제목은 일본의 근대 작가 요시노 겐자부로(1897-1972)의 소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따온 것이다. 이 작품은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판치던 1930년대 후반 인본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에 희망을 걸고 청소년 교육을 위해 쓴 소설²⁰⁾로 지금까지도 청소년 필독 고전으로 사랑받는 책이다. 소설은 코페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한 소년을 중심으로 그의 교우관계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혜,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어, 내용 면에서는 애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서사와는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이 소설에서 제목을 따온 이유를 작품 후반부 마히토의 대사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작품 후반부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자 꿈꾸던 큰할아버지는 마히토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권하며 악의에 물들지 않은 돌을 내밀고, 그것으로 마히토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라고 한다. 그러나 마히토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큰할아버지 서로 죽이고 빼앗고, 어리석은 세계에 돌아가겠다는 거
나. 곧 불바다가 될 세계야.

마히토 친구를 찾을 겁니다 히미나 기리코씨나 왜가리 같은.²¹⁾

스스로 완전무결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거절하고, 마히토는

20) 요시노 겐자부로(2012:261-264)는 이 책의 집필 목적에 대해서는 요시노 겐자부로가 「이 책이 나오기까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21) 스타ジオ즈브리責任編集(2023:333)

‘친구’를 찾겠다고 대답한다. 작품 속 큰할아버지와 마히토의 관계에 대해 스즈키 도시오(鈴木敏夫) 프로듀서는 고 다카하타 이사오(高畑勲) 감독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관계를 의미한다²²⁾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장면을 ‘전쟁’이라는 이 작품의 주요 키워드에 빚대어 생각해 보면, 자신만이 완전무결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제국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다른 존재와의 연대를 통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어리석은) 혼란의 세계를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친구의 예시로 제시한 ‘히미’나 ‘기리코씨’ 그리고 ‘왜가리’는 각각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서로 다른 존재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작품의 영어판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君たちはどう生きるか)>라는 질문의 형식을 띠는 것에 비해, 영어판 제목은 <The Boy and the Heron>으로 해석하자면 ‘소년과 왜가리’라는 단순한 형태이다. 이 영어판 제목은 얼핏 단순히 보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와의 ‘연대’라는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제목이기도 하다. 이것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나름의 대답이 아닐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우관계 속 여러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간다는 내용을 담은 소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제목을 따온 이유를 ‘친구’와 ‘연대’라는 키워드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앞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기획 의도를 통해, 작품에 포함된 ‘태평양전쟁’이라는 그림은 과거의 그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혼란을 그려내고 있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 작품에서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혼란을 견뎌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키워드로 ‘친구’와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2) 『熱風』 2024년 4월호, 13

IV. 맺음말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가 발표된 당시부터 내셔널리즘과 전쟁 미화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은 영화 평점으로도 나타났는데, 한국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영화²³⁾에서 <바람이 분다>의 평점은 10점 만점 중 5.34점이다. 이전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에 대한 평점이 대부분 9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평점 역시 6.96점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바람이 분다>는 전투기 ‘제로센’ 개발자를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쟁 미화 논란에 휩싸였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23)의 경우 주인공의 아버지가 군수산업에 종사하고, 일본군의 출병을 환송하는 장면 등 태평양전쟁을 묘사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특히 한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그중에서도 태평양전쟁이나 일본군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는 ‘전쟁 반대’가 아니면 ‘전쟁 미화’라는 양극단의 평가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 반대’ ‘전쟁 비판’을 표현하지 않는 작품의 경우,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작품의 이면에 숨은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어렵게 한 것은 아닐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일본과 특히 한국에서의 비판을 예상했을 법 한데도 ‘태평양 전쟁’을 작품에 드러냈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 발표 당시 상당한 비판과 함께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2003)에서 다시 한번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 두 작품은 여전히 불편한 역사인 과거의 전쟁을 굳이 드러내 묘사함으로써, 단순히 전쟁을 미화하느냐, 전쟁을 비판하느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해석에 갇히지 않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작품인지도 모르겠다.

23) 네이버 영화 평점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바람이 분다>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공통되게 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전쟁 당시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각각의 기획·제작된 시기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야자키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직면한 혼란임을 알 수 있다. 10년 간격으로 발표된 이 두 작품을 통해 어떠한 혼란의 시대에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을 위한 하나의 완전 무결한 권력이 아니라 다른 존재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미야자키 하야오, 황의웅 역(2013), 『반환점』, 대원씨아이.
요시노 겐자부로 지음, 김옥 옮김(2012),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양철북.
スタジオジブリ責任編集(2023), 『THE ART OF 君たちはどう生きるか』, スタジオジブリ.
スタジオジブリ責任編集(2013), 『THE ART OF THE WIND RISES』, スタジオジブリ.
堀越二郎(2012), 『零戦 -その誕生と栄光の記録』, 角川書店.

[학술논문]

- 박상도(2015), 「『바람이 분다』를 둘러싼 전쟁미화와 반전 의식」, 『한일 군사문화연구』 20, 335-359.
이지현(2020), 「대중 문화에 나타난 일본 내셔널리즘 표현 구조 —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 재고」, 『일본사상』 39호, 265-286.
정겨운(2016),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에 드러난 "아름다움" 과 "살아야 함"의 의미 연구」, 『감성연구』 12, 199-229.
정연욱(2019), 「일본의 영상문화콘텐츠 국가 브랜딩 전략과 전쟁기억의 망각 연구 - 「영원한 제로(永遠の0)」와 「바람이 분다(風立ちぬ)」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80, 309-329.
山本昭宏(2023), 「遠い戦争と鳥たちの「帝国」、そして風吹く縁の丘」 『現代思想』, 201-206.

[기사]

- 「[기획] 세계와 나 그리고 지브리에니메이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 씨네21(2023.11.03.)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103795

(검색일: 2024.08.19.)

「特集ワイド面・映画：賛否両論「風立ちぬ」「感動」×「違和感」キーワードは「ピラミッド」, 毎日新聞(2013.08.21. 東京夕刊).

「特別収録 映画「君たちはどう生きるか」アカデミー賞受賞記者会見, 『熱風』(2024.04.), 5-24.

「宮崎駿監督「この世は生きるに値する：引退会見の全文」, 日本経済新聞(2013.09.07.)

<https://www.nikkei.com/article/DGXNZO59386140W3A900C100000/>(검색일: 2024.08.19.)

「宮崎駿監督、新作長編を準備 事実上の引退撤回か」, 日本経済新聞(2017.02.24.)

https://www.nikkei.com/article/DGXLASDG24H8Y_U7A220C1CR8000/(검색일: 2024.10.13.)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정치적 발언, 그리고 신작 '바람이 분다」, 텐아시아(2013.09.03.)

<https://tenasia.hankyung.com/article/2013090333714> (검색일: 2024.08.19.)

「<전쟁과 한 여자>, “그래도 미야자키 하야오보다 낫다”」, 시사IN(2013.08.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492>(검색일: 2024.08.19.)

네이버 영화 평점,

(1) <바람이 분다> 평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Ew&pkid=68&os=1836750&qvt=0&query=%EC%98%81%ED%99%94%20%EB%B0%94%EB%9E%8C%EC%9D%

B4%20%EB%B6%84%EB%8B%A4 (검색일: 2024.08.19.)

(2)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평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 tc&mra=bkEw&pkid=68&os=32034616&qvt=0&query=%EA%B 7%B8%EB%8C%80%EB%93%A4%EC%9D%80%20%EC%96 %B4%EB%96%BB%EA%B2%8C%20%EC%82%B4%20%EA% B2%83%EC%9D%B8%EA%B0%80 (검색일: 2024.08.19.)

❖ ABSTRACT

Times of war and what it means to live
–Focus on the animated films *The Wind Rises*(2013)
and *The Boy and the Heron*(2023)–

Park, Shin Young
Hallym University

Hayao Miyazaki's animated films *The Wind Rises*(2013) and *The Boy and the Heron*(2023) are set in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in World War II. Unlike his previous works, which primarily depicted wars in a fantastical setting, these films explicitly referenc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acific War” waged by Japan during World War II.

However, the films were heavily criticized for their setting in the “Pacific War“ without directly or actively critiquing the war. But is the War of the past really the subject the director intends to explore in these films? To more deeply understand the director's intentions and message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not only his stated aims in the proposal but also the period in which the films were planned and produced. This article analyzes *The Wind Rises* and *The Boy and the Heron* concurrently, considering the directors' intentions and global trends at the time of their conception and production, to delve into the themes of 'War' and 'Life'.

Keywords: Hayao Miyazaki, *The Wind Rises*, *The Boy and the Heron*, War, Life, Cultural power

■ 논문투고일 : 2024. 09. 08

■ 심사완료일 : 2024. 09. 30

■ 게재확정일 : 2024. 10. 11